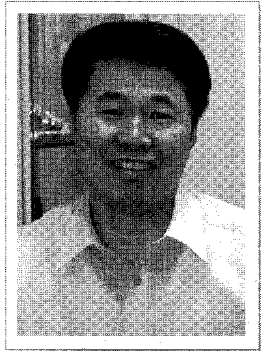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 아차,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발명을 이해하고, 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어, 이걸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잖아! 저거, 어쩌면 나랑 생각이 똑같지? 아깝다, 나도 바로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라는 생각 말이다.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되어 내 앞에도 나타났다. 나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출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머리 속에 준비하고 다닌 아이디어가 벌써 상품화되어 신문광고에 나온 것이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아이디어로 상품화되어 나타났지만... 그 광고를 보면서 나는 속상함과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 신문광고 하나에 나 자신의 ‘발명 사랑’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수없이 생각하면서 세상 밖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던 머리 속 아이디어는 세숫대야 안에서 잠시 일어났던 물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 광고로부터 받은 압박감에서 벗어나보고자 잠시 방황하던 중 서점을 찾았고, 결국 거기서 내 마음에 순간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좋은 책 한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깨달음으로 인해 발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성공한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킨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 순간이나 찰나보다는 ‘아차’를 놓치지 말라!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순간과 찰나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빠른 말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물론 발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순간(瞬間)은 ‘눈 깜박임을 의미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지금’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찰나(刹那)는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약 0.013초’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이나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질랑 말랑 간들간들하다가 그 접촉된 부위에서 분리되려는 시점의 짧은 간격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약 75분의 1초 정도로 구분 할 수 있는 찰나보다는 지극히 짧은 의미인 순간(瞬間)이 더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순간이나 찰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아차’라는 말은 단지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차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선뜻 나오는 소리, 즉 ‘깨달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이슈가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보다는 정보가 우선이고, 또 정보보다는 깨달음이 우선이다. 왜 그럴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은 지식이나 정보에서 얻는 것보다 깨달음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야 하는 종교적 깨달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조절하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와 또 자신이 속한 환경을 빨리 인식하며, 발명의 흐름을 읽고, 발명이 흘러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아차!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스스로의 탄성을 멈추게 하는 일이고,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곧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아차!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 박사학위를 받은 작가 겸 컨설턴트인 앨런 프리먼과 ‘세서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보브 골든, 이 두 사람이 유쾌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50대 상품’ 속에 숨어있는 성공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아차!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동력이며, 이런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관리할 때 굳이 돈이 된다는 것 보다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보다 용기를 내 한 걸음 앞서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술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개의 질문 중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새로운 것을 실천하자면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결국 엉뚱한 행동을 과감히 저지를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들어,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겁이 나서 말도 못 꺼냈던 적은 없습니까?>

<상사나 선배, 말 잘하는 동료나 친구가 ‘무슨 소리야’, ‘너 무 황당해’라고 할 때, ‘머리가 얼어붙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아이디어의 싹은 말라붙는 법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말도 안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오늘 하루, ‘엉뚱하다’ 혹은 ‘황당하다’는 소리를 들을 법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에 딱 맞는 생각을 하였거나 혹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을까?

우리들 대부분은 IMF를 거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잃었고, 그 여파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명 아이디어 자체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디어를 내 사업을 하는 분야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머리 속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고, 어쩌다 머리가 얼어붙지 않아서 바깥세상을 구경한다 하여도 상품화 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생각을 성공하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려면 지금 깨달아야 한다. ‘아차!’하고...

### 아이디어를 두 번 죽이는 5가지 편견

요즘 어떤 개그맨이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편견’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편견은 인지적 요인(인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요인(특별한 이유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함)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거나 충분한 근거 또는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미리 갖고 있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나 발명에서는 부정적인 쪽의 견해가 더 우월적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편견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좋은 아이디어 생산을 막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그것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아이디어를 통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편견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도한 책 한권 읽기에서 감히 내 마음을 달래주었던 좋은 책이라고 했던 이유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두 번 죽이는 5가지 편견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였다.

첫째, ‘좋은 아이디어는 과학자나 기술자 등 머리 좋은 사람들나 낼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 둘째,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도 ‘이런 아이디어는 누군가 이미 냈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편견, 셋째, ‘우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돈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는 편견, 넷째, ‘아이디어 하나로 떼돈을 벌어야지’하고 덤비는 편견, 다섯째, ‘자신은 아는 것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 떠올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밑천은 건강과 휴식이며, 상식에 얽매이지 않은 생활습관이지만 이런 요인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사소한 편견에 의해 날려버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것은 바로 ‘나(아이디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니까.

### ■ 나도 발명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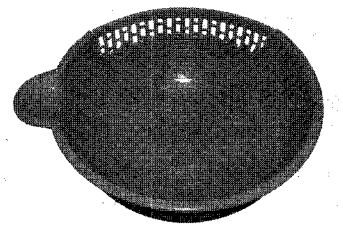
## 쌀 씻는 바가지만들기

쌀(rice)은 벼의 껍질을 벗겨낸 알갱이를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중국 등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의 주요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쌀을 씻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쌀이 바가지의 잘못된 구조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쌀을 씻을 때 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름망이 달린 쌀 씻는 바가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런 제품은 사출이라는 플라스틱 성형 방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지만 발명의 기본 기법을 이해하고 발명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집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준비물**  
플라스틱 바가지, 본드나 순간 접착제, 글루건, 작은 거름망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나 망, 가위, 칼, 플라스틱 절단용 톱(쇠톱날이 좋음).

- 만드는 과정**
- ① 바가지의 손잡이 왼쪽 윗부분에 폭 약 15~20cm, 높이 약 2.5cm 정도의 선을 긋는다.
  - ② 플라스틱 거름망에 위의 바가지 부분보다 약간 크게 선을 긋는다.
  - ③ 두가지 제품의 선을 그은 부분을 자르고 사포질한 후 깨끗이 청소한다.
  - ④ 바가지와 거름망의 접촉부분에 접착제(순간 접착제 혹은 실리콘)를 바른다.

즉 바가지의 한쪽 가장자리 윗부분에 거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쌀을 씻을 때 물이 먼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쌀 한 톨이 모여서 한 가마가 된다는 진리와 우리 생활주변에는 아직도 발명해야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